

한국수력원자력, 캐나다원자력연구기관 사용후핵연료분야 기술협력 MOU

-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기술 및 해체기술 확보를 통한 원전사후관리 역량 강화 -



한수원과 CNL(캐나다원자력연구기관)이 사용후핵연료분야 기술협력 MOU를 체결했다. 이번 MOU는 한수원 최초로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(Metaverse) 공간에서 이뤄졌다.

한국수력원자력(한수원)이 10월 14일 캐나다원자력연구기관(CNL, Canadian Nuclear Laboratories)과 ‘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및 원전해체 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협력 MOU’를 체결했다.

CNL은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기술 및 원전해체 경험이 풍부한 캐나다 최고의 원자력연구기관이다. 이번 MOU를 통해 ▲사용후핵연료 건식 및 습식 저장기술 교류 ▲원전해체 경험 및 정보 교환 ▲원전사후관리분야 인력양성 ▲R&D분야 기술교류 등 원전사후관리분야 전반에 걸쳐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.

양 기관의 협력으로 한수원의 관련 분야 역량 강화는 물론, 정부과제로 추진중인 ‘사용후핵연료 장기저장 실증시험 기술’개발 등 다양한 분야로 협력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.

이번 MOU는 한수원 최초로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(Metaverse) 공간에서 진행됐다. 한수원은 메타버스 공간에 한수원 경주본사 전경 및 회의장을 구축하고, 양 기관 대표 및 참석자의 아바타를 생성해 MOU를 체결했다.

한수원 정재훈 사장은 “CNL과의 기술협력으로 사용후핵연료 및 원전해체 분야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”며 “한수원이 미래 글로벌 해체시장을 주도하는 종합에너지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 **KMIF**